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요약》

본 연구는 4쌍의 지적장애 성인 남녀가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문제로 첫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셋째,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지적장애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참여관찰, 심층면담을,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 동료장애인, 종사자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랑의 본질 14개를 도출한 후,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삶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나, 보다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 종사자에 대한 동시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지적장애 성인, 이성교제, 사랑, 성적 삶, 현상학적 연구

1. 서론

1. 문제의식 및 연구의 필요성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삶에서 사랑은 거의 제외되어 왔는데, 이들의 사랑을 다룬 연구를 거의 발견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과 같은 성적 삶을 거의 누리지

*제 1저자(juliajong@hanmail.net)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들 중의 한 가지일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역사 안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온 집단이다. 이들은 성이 없는 무성적인 존재나 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순진무구한 아이로 인식되어 왔다(Cornelius, Chipouras, Makas, & Daniels, 1982; Mitchell, 1985).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이 이성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저 보호와 돌봄만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왔다(Kaeser, 1996; Tepper, 2000). 비장애인들은 이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이성과 사랑하는 능력에도 장애가 있으리라고 믿어 왔기에, 이들이 이성에게 관심을 나타낼 때 당혹스러워 한다. 다른 극단에서, 지적장애인은 성적으로 과도하며,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고, 도착적인 성관계 등을 추구한다고 여겨왔다(Fairbrother, 1983).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이 드러내는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들에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기보다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더 나아가 처벌하기까지 하였다(Kempton 1983; Patti, 1995).

사람들의 성인기의 삶에서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며, 여기에 동반될 수 있는 성적 활동이다(Koegel & Whittemore, 1983). 가장 원초적인 욕망으로서의 사랑은 이성교제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이다(김상봉, 1996). 거의 모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은 늘 남녀 관계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이성 간의 사랑은 지적장애 성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적장애 성인의 결혼관을 다룬 최근의 한 연구(정진옥·신현기, 2007)는 지적장애 성인도 이성 관계와 그에 내포된 사랑에 관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의 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 대상 연령이 학령기이거나 청소년기가 대부분이다. 물론 지적장애 성인의 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 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비해 훨씬 적다(김정영, 2001; 김진희, 2001; 이미진 2001; 임선명, 2003; 정진옥, 1997, 2006; 정진옥·신현기, 2007; 최옥순, 2001). 이처럼 지적장애 성인의 사랑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물론 성에 대한 연구조차 적은 이유는 특히 지적장애인의 부모와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녀온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 때문일 것이다.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이 학문적 주제로는 진부하거나 가치 없는 것(Buscaglia, 1982; Lunskey & Konstantreas, 1998)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인이 이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거나(Gebhard, 1973; Held, 1992), 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이에 수반하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Patti, 1995)는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사랑은 너무 유아적(Edmonson, McCombs, & Wish, 1979)이거나 위험할 수 있으며, 성관계로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Ballan, 2001)는 등의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

면, 연구시에 피험자인 지적장애인이 연구자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제대로 대답할 능력이 없거나, 혹 질문을 이해할지라도 적절한 반응을 얻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연구자들의 이들에 대한 평가절하식의 사고 때문일 수도 있다(Lunsky & Konstantareas, 1998).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연구의 부재는 그로 인해 우리가 지적장애 성인을 이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기능할 수도 있다(Kaaser, 1992).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연구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적장애 성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성인기 삶에서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이성 간의 사랑(김상봉, 1996; 정진옥·신현기, 2007)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어 형성되는 상호작용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직접 그들의 생활세계에 들어가 관찰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방식의 연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 커플들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연구자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경험을 반성(reflection)하고, 그럼으로써 지적장애 성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포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탐구하는 현상은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닌, 그 경험이 연구자의 의식에 투영된 바로 그 ‘현상’인 것이다. 이성교제에서의 사랑과 같은 인간의 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그러한 경험을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탐색하는데 있어 유용한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추측과 판단에 의하여 그들에 대해 오해했거나 잘못 알아왔던 부분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지적장애 성인의 성적 삶을 위한 지원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포착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구성하였다:

- 첫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 둘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셋째,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지적장애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용어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 사랑은 연구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관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질문해서 얻어진 그들의 진술을 기술함으로써 제시되었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장소와 연구참여자

1) 연구 장소의 선정 및 특성

연구 장소는 서울 동부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희망작업활동시설*이다. 그곳은 연구자가 2년 반 동안 근무해 오고 있는 곳이기에, 연구참여자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면담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지적장애 성인 여성 9명과 남성 15명, 총 24명이 임가공 작업을 한다. 장애인들은 본인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출퇴근 한다. 그러나 11명의 장애인들은 작업장과 동일 건물 내에 있는 3곳의 공동생활가정에서 주중의 생활을 교사와 함께 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연구참여자는 ‘준거 표집 전략(criterion sampling strategy)’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준거와 연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정보는 <표 1> 과 <표 2> 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선정 준거

-
- ① 1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
 - ②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인 있는 사람(=이성교제에서 사랑을 경험한)
 - ③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어로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 ④ 본 연구의 목적을 알고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허락한 사람
-

* 가칭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번호	이름	성별	연령	장애	지능*	어휘력**	학력	가족관계	시설 이용기간	주거지
1 커플	O	여	45	3급	77	8세	특중졸	중산층 부모, 남동생1명 여동생1명	14년	그룹홈
	C	남	43	3급	72	8세 8개월	초졸	빈곤층 편모, 형2명 여 동생 1명	"	"
2 커플	J	여	35	3급	78	9세 2개월	초졸	중산층 편모, 오빠 2명 언니4명.	7개월	가정
	P	남	37	3급	78	8세6~8세 11개월	특중졸	중산층 부모, 형1명 남동생1명	14년	그룹홈
3 커플	H	여	30	2급	67	5세	특고졸	빈곤층 편부, 언니1명 남동생1명	6개월	가정
	K	남	42	2급	68	7세~7세 5개월	초졸	빈곤층 부모, 남동생2 명	14년	"
4 커플	L	여	23	3급	73	8세 4개월	특고졸	중산층 편모, 오빠1명	1개월	가정
	W	남	43	3급	78	8세 11개월	특고졸	중산층 편모, 여동생1 명 남동생1명	14년	"

* KWIS 검사, **PPVT 검사

연구참여자 O. O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만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에 있어 소극적이며, 자주 우울해 하고, 무력해 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고치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된다며 실망한다.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멋을 내도 잘 안 된다는 부정적이고 자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연모해 오던 두 살 아래 C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였지만 그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짝사랑만 하다가 본 연구가 시작되기 약 두어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고 있다.

연구참여자 C. C는 언변이 뛰어나며, 연예·시사·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동료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자치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문해 능력과 수 개념, 공간지각, 작업 수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에 이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자신의 지적장애와 불편한 다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으며, 간혹 의도적인 스킨십을 하기도 한다. O와 연인관계를 시작하면서 동료들에게 사귀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O를 “내 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J. J는 예쁜 얼굴과 아담하고 여린 몸, 친절하고 애교 있는 말씨로 모든 남성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마에 앞머리를 몇 가닥 늘어뜨림으로써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자기를 좋아하

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P를 좋아했으나 그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것을 알고 일부러 K에게 접근하여 두어 달 동안 사귀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결국 K와 결별한 후 적극적으로 P에게 접근하여 현재 P와 연인관계이다.

연구참여자 P. P는 외모도 말쑥하고 작업능력도 우수하여 작업반장을 맡고 있다. P는 자신이 애인도 없고 결혼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족이 자신의 결혼을 원치 않는데, 이는 자신이 직장이 없고 돈이 벌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한 여성을 사귀었으나, 그녀가 다른 남자 동료가 사주는 커피를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퇴근하는 것을 바람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방적인 결별을 선언하고 난 후 현재 J와 사귀고 있다.

연구참여자 H. H는 다운증후군 여성으로 노래와 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잘한다. 흥이 많은 반면 고집이 세고, 좋고 싫음에 대한 자기주장이 강하고, 과격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애교와 엄살도 부린다. 종사자들에게 사랑한다고 적은 쪽지에 “꼭 껴안아 주세요”라는 표현을 써서 준다.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양 팔을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애정을 표현한다. 처음에는 W에게 관심이 있어 접근해 오는 K를 싫어했으나 현재는 애인관계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K. K는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잘 보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이 매우 빠르며 매번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지만 먼저 접근하는 타입은 아니다. J의 제안에 의해 그녀와 사귀는 동안 매우 행복해 했으나 결별하고는 우울해 하고 불안해하면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후 H에게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끈질기게 구애함으로써 현재 H와 연인사이로 지내고 있다.

연구참여자 L. L은 예쁜 얼굴과 튼튼한 신체, 다소 남성적인 쾌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아 한 손에 늘 립스틱이나 손거울 등을 들고 있고, 머리손질, 의복, 손톱손질도 잘 하고 다닌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다. 첫 출근한 날, 첫눈에 반한 W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가, 두 달 후 사회-성교육 시간에 W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현재는 애인사이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W. W는 준수한 외모와 달변으로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장애를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신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성적인 정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

며, 그의 풍부한 정보력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늘 휴대폰을 갖고 다니며 조작하는 것을 즐긴다. L의 고백을 들은 후 사귀고 있지만 애정 표현을 걸어로 잘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나이 많음을 늘 의식하고 있다.

3) 보조 정보제공자

보조 정보제공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3명과 올케 1명, 작업장 동료 3명, 그리고 시설 종사자 3명이었다.

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수집, 그리고 현장일지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 참여관찰

2007년 7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70회 실시하였다. 출근 후 약 15-20분 간, 그리고 중식 후 약 30분 간의 휴식시간에 연구참여자들을 관찰하였다. 매일 관찰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 전사하였고, 현장노트(field note)를 작성하였다.

비디오 녹화는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중식 후 30분 간의 휴식시간에 작업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하는 상호작용을 16mm 캠코더 카메라를 고정시켜 녹화하였다. 비디오 녹화는 모든 이용인들의 허락을 얻은 후, 촬영하기 두 달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촬영될 수 있게 하였다. 녹화 장면을 매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켜 저장한 후 이를 데스크탑 모니터로 보면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전사하였다.

2) 심층면담

(1) 연구참여자 면담

연구참여자들과 면담하기 전에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면담하여 질문 내용, 질문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 등을 수정하였다. 면담은 개별면담, 커플면담, 그리고 집단면담으로 이루어졌다. 개별면담은 프로그램실에서 약 30분~1시간 반에 걸쳐, 지침서의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반구조화 면담으로, 1인당 3회~5회 실시하였다. 커플면담과 집단면담은 동일한 질문들을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커플면담은 약 20분~30분, 집단면담은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였다. 개별면담은 보이스펜으로 녹취하고, 커플면담과 집단면담은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커플면담은 커플별로 1회씩, 집

단면담은 2회 실시하였다. 녹취한 내용의 전사 분량은 A4 용지로 102매이다.

(2) 보조 정보제공자 면담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3명과 대면하여 면담하였고, 올케 1명과는 유선으로 면담하였다. 동료 면담은 3명의 작업장 동료와 이루어졌다. 작업장 종사자 1명과 그룹홈 종사자 2명과의 면담하였다.

3) 문서수집

희망작업활동시설에 보관되어 온 연구참여자들의 개별화일과 상담내용, 프로그램 평가서 등을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4) 현장일지(Field notes)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현상이나 개인적 감정에 집중하여, 적을 필요를 느낄 때에만 반성적인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A4 용지로 40매에 이른다.

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에 대한 관찰자료와 면담자료, 그리고 보조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순환적 과정으로, <표 3>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관찰 자료는 개방 코딩으로 분석하였고, 면담 내용은 Colaizzi (1978)가 개발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자료 분석 과정

자료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자료> · 면담자료 · 관찰일지 <보조자료> · 보조정보제공자 면담자료 · 개별화일 · 현장일지	기간	2007. 7~12	2007. 12 ~2008. 3	2008. 4	2008. 4~5
	내용	· 참여 관찰, · 비디오 녹화 및 전사 · 관찰일지, 비디오 녹화 전사 자료 분석	· 개별면담, 커플면담, 집단 면담 · 보조정보제공자 면담 · 면담 자료 분석과 주제 도출	· 1단계와 2단계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주제들 통합하여 주제군 도출	· 추가 면담실시 · 본질 도출 · 연구참여자와 보조정보제공자에게 분석 결과 검토
현장일지 기록					

III. 연구 결과

지적장애 성인들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포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찰 자료와 면담 내용,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종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관찰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표 4>. 이 주제군들은 면담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군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함에 따라, 사랑의 본질을 도출할 때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수 있었다.

<표 4>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관찰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리적 근접성 2. 비성적인 친밀한 행동과 활동 3. 사랑의 눈빛 4. 사랑의 말 5. 돌봄과 물질의 나눔
--

연구참여자들이 면담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을 여성들과 남성들로부터 각각 155개와 159개 도출하였다. 이들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는데, 여성들과 남성들의 진술에서 각각 33개와 32개의 의미들을 형성해 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면담시 진술 내용의 의미 있는 문장 및 구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나지요. 지금 뭐하나, 보고 싶어요.”

“나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빨리 왔거든요. 보고 싶어갔고.”

“매일 그 사람 생각하고, 퇴근해서 오빠는 뭐할까...”

“계속 생각나요. 샤워할 때, 이빨 닦을 때, 밥 먹을 때 (눈앞에 모습이) 왔다 갔다 해요. 꿈에도 나타나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자가 형성한 의미

자나깨나 그리워한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을 기술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구성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총 314개 도출하였고, 다시 이들로부터 총 65개의 의미들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의미들에서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주제들을 중심 의미로 통합함으로써 사랑

의 본질을 14개의 공통된 주제군으로 드러냈다 <표 5> .

<표 5>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트너 선택의 기준 2. 물리적 가까움 3. 정서적 친밀감 4.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5. 말씨, 눈빛, 낯빛, 몸짓 6. 보살핌 7. 강요될 없는 성숙 8.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9.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10.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11. 성(sex)과 사랑의 경계 짓기 12.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13.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의 發露 14.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

보조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 내용에서 도출해 낸 주제군은 <표 6> 과 같으며, 이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관찰 내용과 면담 내용을 보완 또는 입증해 주는데 사용되었다.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들의 특성에 맞춰 <표 7> 과 같이 재구성시켰다.

<표 6> 보조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 자료에서 도출된 주제군

구분	주제
어머니/보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2.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우려와 책임 3. 자녀의 이성교제 상대에 대한 기대
동료 이용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커플들의 애정표현 2. 커플들의 이성교제로 인한 부러움과 외로움 3. 커플들의 바람피기
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커플들의 애인 선택 조건 2. 커플들의 신체적 애정 표현 3. 커플들의 물질적 애정 표현 4. 커플들의 애정 전략 5. 커플들의 바람피기 6. 커플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 7. 동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부러움과 경쟁심)

〈표 7〉 연구 문제들에 맞춰 재구성한 사랑의 본질

연구 문제	성과 사랑의 본질
1.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 파트너 선택의 기준 2. 정서적 친밀감 3.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4.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5. 성(sex)과 사랑의 경계 짓기
2.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 물리적 가까움 2. 말씨, 눈빛, 낮빛, 몸짓 3. 보살핌
3.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강요됨 없는 성숙 2.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3.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4.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5.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의 발로(發露) 6.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

다음의 현상학적 반성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한 사랑의 본질을 연구자가 이들과의 간주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생성해 낸 내용들이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

연구 문제 1.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 파트너 선택의 기준

L: 첫 눈에 딱 띄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얼굴이 잘 생겼잖아요.

J: P오빠가 성실하고 그런 것에 좋아하게 되었어요...P오빠 능력 있어서.

W: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깐...착하잖아요...섹시한 거보다도 성격이 시원시원 하잖아요.

K: 예뻐요. J보다 더 예뻐요.

W의 어머니: 이왕 사귈려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어야 하잖아요.

지적장애 성인은 상대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 등에 매력을 느낀다. 여성은 남성의 능력과 외모에 많이 끌렸지만 남성은 여성의 성격과 외모에 매력을 느꼈다. 이들도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택하는 능력에 있어 비장애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상대의 외적인 것에 쉽게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어려운 이들의 인지적 특성(Flavell, Miller, & Miller, 2003)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의 외적인 것에 끌리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2. 정서적 친밀감

C: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죠...사랑은 서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어깨동무하고...

O: (사랑은) 존중하는 거요...서로 좋아하는 거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손잡고, 팔장끼고

W: 신뢰가 중요한 거 같아요. 서로가...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나 하는 거지요. 키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표시구요. 연애는 상대방부터 인정받는 거예요...문자로 뭐하냐고 물어요.

K: 가방 들어줘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에게 사랑은 신체적·심리적 측면의 친밀감을 모두 포함하는 정서적 친밀감이었다. 이들은 성적 활동(섹스)을 커플 관계의 중심에 놓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을 손잡고, 껴안고, 팔장끼고, 어깨동무하고, 가방 들어주고, 러브레터 보내는 것 등과 같은 비성적인 활동으로 여겼다. 더 나아가, 사랑을 ‘변치 않는 것’, ‘충실’, ‘신뢰’, ‘인정’과 ‘이해’, ‘존중’ 등의 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성 관계에서 애인과의 신체적인 성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 커플들에게 성의 의미 있는 표현과 경험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 속에 있는 정서적 친밀감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애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느낌, 상호 간의 관심, 그리고 다양한 친밀한 활동들을 하려는 의지는 생리적이고 생식기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Esmail, Esmail, & Munro, 2001). 이는 지적장애인 커플들의 사랑의 질은 성 행동적인 활동들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에 내포된 정서적 친밀감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총체적 발달을 돕는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욕구(Heshusius, 1982)인 것이다.

3.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W: (키스하는 거) 반은 원하고 반은 안 원하고...제가 L에게 뽀뽀라도 한 번 해 줘야 하는데...

O: 저번에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C씨) 손을

치웠어요...제가 내 몸 막 만질까봐. 지난 번에 손은 괜찮은데 제 몸을 만지려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키스)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친밀한 성적 활동인 키스와 스킨십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저하고, 저항하는, 양가적 내적 상태를 경험하였다. 연인과의 스킨십을 원하면서도 그 갈망을 눌러 버리기에, 결국에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성애에 의해 본능을 억제하는 지적장애인 커플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지적장애인은 ‘무절제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존재’(Cornelius, Chipouras, Makas, & Daniels, 1982; Mitchell, 1985)라는 주장은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다.

지적장애인 커플들이 친밀한 성적 활동에 대한 갈망과 저항이라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나 가족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Craft, 1983). 그럼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본능을 억압하고, 여기에서부터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4.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O: 저도 남자친구 있다는 거, 그게 좋아요...나도 이제 이런 거(사랑) 할 수 있다 (그게 좋아요)...(연애를) 일반인들은 하잖아요.

J: (사랑하는 거) 정상인들은 하나까...

W: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안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좋아요. 제가 엄마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내가 말 못하는 고민, 내가 아, 이거는 내가 내 비밀인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몰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 아닌 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거요.

지적장애 성인은 사랑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과 자신이 같은 존재이며, 더 나아가 애인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인간적 우월성을 경험하였다. 이성애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장애를 넘어 ‘정상인’과 같은 ‘정상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실존적 비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듯 사랑은 자신의 장애를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며, 누군가와 성적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인, 다른 사람과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Coleman, 1992)을 이끌어낸다.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애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느낌이 판단 당하지 않고 수용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어쩌면 고해소에서의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이들에게 가져다주었을 수도 있다.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애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와 이해를 근간으로 한 전폭적인 받아들여짐과 드러냄을 체험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의 경험이 된다.

5. 성(sex)과 사랑의 경계짓기

O: (키스는) 입에다 하는 건 제가 싫다고 했어요...결혼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사랑은) 얘기하고 손잡고 하는 것까지요...손잡고 얘기만 하고.(사랑한다고 꼭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연애만 해도 돼요...우린 정말 결혼까진 생각 안 해요...그거는(성관계)는 자신이 없어요.

W의 어머니: 욕구를 다 해결할 순 없지요...그리고 사랑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우리 애가 연애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거죠. 친구 이상은 좀 그렇잖아요.

중사자 E: 자기도 돈만 있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고 했더니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키스와 친밀한 스킨십, 결혼과 같은 성적 활동을 원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을 자신들의 사랑에서 의도적으로 구별해 내려고 하였다. 성관계나 결혼과 같은 성적 활동은 자신들에게 금지되어온, 그래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에서 성적 활동(sex)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성과 성적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이 원치 않음을 알고 있기에 사랑에서 성적 활동을 분리시키고, 이로써 자신들에게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연구 문제 2.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 물리적 가까움

W: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자체로 기뻐요.

아침기도 시간에 커플들이 모두 들썩 나란히 앉아있다.(9월 17일 관찰일지)

노래방 시간에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동안 맨 뒷줄에 K와 H가 서로에게 몸을 기울인 채 딱 붙어 앉아있다. 그러다가 K가 H의 몸을 양 손으로 쓰다듬으며 자기 품에 꼭 껴안는다.(12월 18일 관찰일지)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몸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물리적 근접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애인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지적장애인 커플은 기쁨을 경험하였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이들도 애인과 함께 있기 위한 가능한 순간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커플들은 몸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신체적인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을 경험한다.

2. 말씨, 눈빛, 낯빛, 몸짓

- J: 손도 잡아주고, 키스도 하고...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 H: 일하다가 쳐다봐요. K오빠가 (저를) 쳐다봐요. (K오빠가 쳐다보는 거) 느껴요. 기분 좋아요.
- L: 버스 타고 창문으로 (오빠한테) 손 흔들면 오빠가 보면 흔들어 주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 K: 추울 때 조끼 벗어주는거요...오늘 벗어줄거예요...H 머리 만져줄거예요.
- J는 P곁에 바짝 붙어 서서 P의 손바닥에 자기 손을 치면서 만진다...P의 어깨에 머리를 갖다 댄다...J는 P의 왼쪽 팔을 당겨 자기 팔에 낀다...P는 미소 지으며 J의 어깨에 얼굴을 댄다.
- (10월 16일 관찰일지)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손 흔들기, 손잡기, 어깨동무하기, 걸옷 벗어주기, 머리 쓰다듬기, 가방 들어주기 등과 같이 非性的인 소박한 표현에서부터 껴안기, 키스하기, 애무하기 등과 같은 보다 친밀한 성적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들의 소박한 애정 표현은 다소 유치해 보일지라도, 커플 간의 대화와 스킨십, 그리고 은밀한 눈빛의 주고받음과 장난기어린 활동들은 비장애인 커플 간의 애정 표현과 다를 바 없다.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신체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내적 상태(사랑에의 의지나 감정)를 드러내고, 교감하는데 불능하지 않은 존재임을 말해 준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도 이들처럼 신체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받지 않는가?

3. 보살핌

- C: 배푸는거요...영화도 같이 보고, 비디오도 같이 보고, 과자나 술도 같이 먹고...
- J: P오빠가 종이로 학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좋았어요. 저는 뭘 사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오빠가 과자 사잖아요. 그럼 항상 두 개 달라고 해서 하나는 P오빠 줘요. 집에서 꿀 갖고 와서 주고 그래요.
- J는 김밥을 먹다가 자기가 먹던 나무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P의 입에 넣어준다.(7월 3일 관찰일지)
- H의 걸으로 K가 와서 H의 어깨를 주물러주다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 비듬을 조심스럽게 떨어준다. '머리 감아야 돼, 감아야 돼' 반복하여 말하면서 계속 비듬을 떨어낸다.(2월 20일 관찰일지)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다양한 형태의 배려와 돌봄, 그리고 나눔의 형태로 사랑을 표현했다. 사랑은 자기 자신과 시간, 관심, 음식, 그리고 물건 등을 기꺼이 애인에게 내어

주고 공유함으로써 표현되었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랑은 지적장애 성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몸을 통해서든 물건을 통해서든, 모든 연인들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돌보고, 타인과 자신을 나누게 만드는 강력한 힘인 것이다.

연구 문제 3.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지적장애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강요될 없는 성숙

- C: 애인이 있으니까 작업장에서도 ‘나 보고 있을텐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행동을 조심해서 해요.
- J: 사랑하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작업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전에는 모든 남자들한테 ‘오빠, 오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애교 있게 안 불러요. P오빠가 싫어하기 때문에.
- P: J는 내가 작업반장 하는 거 싫어해요. 몸이 아플까봐...(신경쓰는 건) J의 어머니 아픈 거.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사랑함으로써 마음, 행동, 생활 태도 및 관계적 차원이라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외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 내부에서 솟구치는 사랑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였다. 이렇게 지적장애인들은 사랑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2.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 J: P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P오빠 바람필까봐) 불안은 해도 차라리 불안한 게 나아요. 외로운 거보다...제가 집에 가 있잖아요. 몇 달간. P오빠가 바람필까봐 (불안해요).
- P: (J가) 계속 생각나요. 샤워할 때, 이빨 닦을 때, 밥 먹을 때, 왔다 갔다 해요. 꿈에도 나타나요...
- O: 전 재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그런데 재가 바람필까 봐 그게 걱정 되요.
- W: 애가 전에 있던 곳에 애인 있어서 제가 ‘아직도 사귀냐?’고 물었어요. 아직 사귀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되요. 삼각관계 되잖아요...별로 기분 안 좋지요. 걱정도 되고.

커플들은 사랑함으로써 이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였다. 한

존재를 향한 思慕와 떨림, 즉 에로틱한 새로운 느낌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겨났으며, 이것은 그리움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질투와 불안의 감정도 일으켰다. 이로써, 사랑이란 감정적으로 마냥 행복한 상태가 아니며, 그로 인한 심적 고통도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세상의 많은 연인들이 그러하듯, 사랑에 동반된 이런 감정들에 는 애인을 붙들어 두려는, 즉 애인과 안전적이고, 장기적인 애정관계를 추구하려는 욕구 가 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3.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 C: 사람들 많으니까...여기는 (키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긴 애들이 빙 둘러 있잖아요.
- J: 우린 추위도 점심시간 때마다 나가요(데이트 하러). 장소가 없어요. 단 둘이 있을 장소가.
- W: 일반인들은 하잖아요. 사랑하면 커플도 될 수 있고...장애인들이 결혼하는 거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재네가 커플이라는데 재들이 뭐 사랑할 줄 아나...그거 를 이 사회에서 품어줘야지(열 내면서).
- O: 엄마가 남자 사귀면 안 된다고 했어요...(우리 사회가)아직까지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죠...솔직히 말해서...사랑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건 아니 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요.
- J: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지요. 자기 본능에 충실 해야죠...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연애하면 안 되는 게 아닌데, 나쁜 게 아닌데...일반인들은 대개 장애인들은 남 자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 O 어머니: 아휴, 애네가 뭘 알아요?...저는 아예, 너는 장애인이니깐 결혼할 생각하 지 말고, 이렇게 엄마랑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이 자기들끼리의 친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늘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이성을 사랑하게 됨으로 써 비로소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자신들에게 금지되어 온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친밀한 애정 표현, 그리고 단 둘이 있을 사 적인 곳에 대해 갈망할수록 커플들은 사회와 자기들 삶의 현실을 비판적 의식하게 된 다. 사랑함으로써, 이들은 성인인 자신들의 삶에 사생활의 부재와 성적 활동에 대한 금 지와 억압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장애로 인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더욱 확 연히 깨닫는다.

4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 L: (사랑한다는 표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애교 부려봐요?

O: 우리가 연애를 언제 해 봤겠어요? 연애하는 걸 배우지 못 했어요...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W: 드라마나 영화에서 키스하는 것 보지만 나는 못하나 보다 하고.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는데...머릿속, 마음속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고.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으니까...키스는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키스는 원하는데 무서워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K: (데이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실수 할까봐 두려워요...안 해봤어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애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 그리고 활동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궁금해 하면서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결국 앞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 버린다. 사랑에 내포된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무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 애인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시 애인과의 친밀한 성적 활동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5.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의 發露

W: L에게 너 오빠하고 극장갈까 했더니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한 대요. 나이가 몇인데 허락을 받아?...비밀로 할 건 비밀로 해야죠. 우리가 애도 아니고 모든 얘기를 부모에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저도 성인이고, 제 나름대로 엄마에게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을 얘기가 있는건데...엄마가 사귀는 거 반대해도 몰래 사귀면 되지요. 그리고 뭐 제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C: 우리가 어른인데, 엄마 상관 안 해요...사귀는 거 안 원할 거 같아요. 그래서 비밀로 하고 있어요.

H: 키스는 비밀이니까 (아빠에게) 말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지적장애인 커플들에게 이성과의 사랑은 부모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와 교사 앞에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이성과의 사랑을 비밀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계속 사랑하겠다는, 용감하고, 도전적이며, 저항적인 이들의 태도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이 자라고 있음이 드러난다.

6.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

P: 바람피는 건 나쁜 거예요. 전 바람피는 여자 싫어요. 싫어...애교 떨어요...광우형에게 커피 줘요..

.(J가) 다른 남자 옷 입고, C형 옷 입고...(다른 남자들하고) 집에 같이 가요. 나랑 같이 안 가고.

O: C가 온 여자들 잘 챙겨줘요. 이 여자, 저 여자. 싫어요. 속상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만 챙겨줘야지.

J가 P의 이전 애인인 경애에게 '삼년 동안 친하게 지내놓고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한다. 경애는 별 반응이 없다. 그러자 J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삼년 동안 친하게 지내놓고는 그럴 수 없어. P오빠 좋아 한대잖아.'라고 말한다. 그러자 곁에 있던 W가 'P씨 삼각관계다, 삼각관계'라고 하면서 '이 여자 가지고 놀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 말하고 웃으면서 놀린다.(11월 23일 관찰일지)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이성 관계에 있는 불충실한 모습들을 자신들의 현실에서 경험하였다. 이들은 불충실한 애인의 모습에 질투하고 분노하였다. 연인관계에서 불충실한 상황을 볼 때 나름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커플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오해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바람피는 것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란스럽고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닌 불확실한 성 도덕과 성 가치는 한편 신뢰로운 커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관계의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IV. 논의 및 결론

사랑의 영역에서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무성적이며, 미성숙하고, 아동처럼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러는 성적으로 과도하여 성 충동을 조절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무분별한 성관계를 할 거라는 통념과 오해(Ballan, 2001; Cornelius, Chipouras, Makas, & Daniels, 1982; Fairbrother, 1983; Kaeser, 1996; Lofgren-Martenson, 2004; Mitchell, 1985; Tepper, 2000)가 이제는 바로잡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 성인이 비장애인들처럼 성적 존재로서 이성과의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며, 또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지원에서 분명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통념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사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사랑에 관하여 부모나 교사가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이 이성과의 사랑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기보다 사랑받는 문제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스럽게 되는가에 골

물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의 소극적이고 미성숙한 차원이며 사랑을 감정의 차원으로만 보는데서 생겨나는 것이다(Fromm, 1990). 그러나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으로(Buscaglia, 1982; Fromm, 1990),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동이어야 하며, 서로 선택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Fromm(1990)은 말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하나의 결단이고, 판단이며,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이성과의 사랑에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의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Fromm(1990)에 의하면 사랑하는 것이란 개인이 자신에 의해, 또 자신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인간적 경험이라고 한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능동적 관심의 상태에 있으며, 이는 강렬함, 각성, 고양된 생명력의 상태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전 생애에 걸쳐 실현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활동(activity)으로 본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무기력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존적 기분들은 끊임없는 사랑의 활동을 통해 극복하여 자신을 완성시키고 타인과 합일의 상태로 나아간다.

사랑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게 아닌, 개인의 내적 삶이 그가 살아가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랑은 이러한 맥락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Fromm(1990)은 말한다. 이것은 지적장애 성인이 사랑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보다 성숙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안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속해 있거나 이들을 둘러싼 환경도 이들과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성인들은 가족과 사회가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고, 허용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 본능을 지닌, 이성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해 가는 성 규범과 가치 내에서 이성과의 사랑의 표현은 적절히 조절되어 표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들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지원,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 커플에게 사랑은 정서적 친밀감이나, 갈망과 저항의 모호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 비장애인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적 飛翔의 수단이고, 자기를 개방하는 통로이지만, 사랑은 성(sex)을 분리시킬 때에만 허용된다고 여긴다. 이들은 小兒的인 감정적 차원의 사랑뿐 아니라 의지적이며 신체적인 성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것이 수용되고, 허용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 커플은 물리적인 가까움과 신체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며, 보살핌의 형태로 사랑을 더욱 정교화 시킨다. 사랑은 이성적 차원에서보다 몸의 차원에서 더욱 진실되게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건전한 리비도적 삶의 유지가 가능할 때 인간다

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지적장애 성인들이 자신들의 환경 내에서, 또 그 환경을 넘어 이성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표현은 우리 사회의 규범과 성 도덕의 범주를 넘지 않는, 그럼으로써 존재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랑은 지적장애인에게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그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느낌과 욕구를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자신들의 성적 삶에 대한 자각, 그리고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는 이들에게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적장애 성인을 둘러싼 사랑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비장애인과 결코 다르지 않고, 인간 공통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아 온 지적장애 성인이 성인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일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적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이로써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Eisner가 “장미의 이름을 라틴어로 된 학명으로까지 알고 있더라도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지 않았다면 장미를 안다고 할 수 없다”(박승배, 2006, p. 79에서 재인용)고 한 말처럼, 우리가 지적장애 성인이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는 것에 우선하여, 그들을 존엄한 성적 존재로 인정하며, 그들도 이성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상대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봉(1996). 성과 에로스에 대한 플라톤적 고찰. **감성의 철학**, 정대현·임일환·박정순 외 공저 (pp. 265-295). 서울: 민음사.
- 김정영(2001). 정신지체인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주.
- 김진희(2000).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박승배(2006). **교육비평: 엘리엇 아이즈너의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진(2001). 정신지체인의 시설종사자의 태도 및 역할모색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인과 시설종사자의 태도비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임선명(2003). 성인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진옥(1997). 정신지체여성의 성지식, 성적태도, 성적경험에 관한 일 연구: 18세-30세의 시설거주인과 자택거주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진옥(2006). 자폐인들의 성적 행동특성과 그 지원 교육 탐색,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6, 1-24.
- 정진옥, 신현기(2007). 정신지체인의 결혼관에 대한 사례분석: 재가 미혼 성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2(1), 187-206.
- 최옥순(2001). 정신지체 생활시설인들의 성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대전.
- Ballan, M.(2001). Parents as sexuality educators for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ECUS*, 29(3), 14-19.
- Buscaglia, L.(1982). *삶을 생각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며*(우계숙 역). 서울: 문예출판사.
-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8-71). New York: Oxford Uni. Press.
- Cormelius, D. A., Chipouras, S., Makas, E., & Daniels, S. M.(1982). *Who cares?: A handbook on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for disabled people(2nd. Ed.)*.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Craft, A.(1983). Sexuality and mental retard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A. Craft & M. Craft(Eds.).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entally handicapped people*(pp. 1-37). Baltimore, Maryland: University Park Press.
- Edmonson, B., McCombs, K. F., & Wish, J.(1979). What retarded adults believe about sex,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11-18.
- Esmail, S., Esmail, Y., & Munro, B.(2001). The rol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providing options and alternatives for couples, *Sexuality and Disability*, 19(4), 267-282.
- Fairbrother, P.(1983). The parents' view, In A. Craft & M. Craft (Eds.),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entally handicapped people*(pp. 95-109).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M.(2003). *인지발달(제4판)*(정명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Fromm, E.(1990). *사랑의 기술*(권오석 역). 서울: 홍신문화사.
- Gebhard, P. H.(1973). Sexual behavior of the mentally retarded. In F. F. de la Cruz & G. D. LaVeck (Eds.), *Human sexuality and the mentally retarded*(pp. 29-49). New York: Brunner/Mazel.
- Held, K. R.(1992). Ethical aspects of sexuality of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Sexuality and Disability*, 10(4), 237-243.
- Heshusius, L.(1982), Sexuality, intimacy, and persons we label mentally retarded: What they think-what we think,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 with Severe Disabilities*, 27(1), 27-42.
- Kaerer, F.(1992). Can people with severe mental retardation consent to mutual sex?, *Sexuality and Disability*, 10, 33-42.
- Kaerer, F.(1996). A survey of the perceptions of twenty-three services providing agencies on the sexual behaviors of persons with server or profound mental retardation, *Sexuality and Disability*, 14(4), 309-320.
- Kempton, W.(1983). Sexuality training for professionals who work with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 Craft & M. Craft (Eds.),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entally handicapped people*(pp. 53-77).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Koegel, P., & Whittemore, R. D.(1983). Sexuality in the ongoing lives of mildly retarded adults, A. Craft & M. Craft (Eds.), *Sex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mentally handicapped*

- people*(pp. 213-240).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Lofgren-Martenson, L.(2004). "May I?" about sexuality and love in the new generati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ity and Disability*, 22(3), 197-207.
- Lunsky, Y., & Konstantareas, M. M.(1998). The attitudes of individuals with autism and mental retardation toward sexuality.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1), 24-33.
- Mitchell, L. K.(1985). *Behavioral intervention in the sexual problems of mentally handicapped individuals: In residential and home settings*.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Patti, P. J.(1995). Sexuality and sexual expression in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SIECUS Report*, 23(4), 17-20.
- Tepper, M. S.(2000). Sexuality and disability: The missing discourse of pleasure, *Sexuality and Disability*, 18(4), 283-29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s of Love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ir Heterosexual Relationships

Jong, Jin-Ock

Doctor of Dankook University

Shin, Hyun-Ki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e the nature of love which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d experienced through a phenomenological method. The questions of the study were followed: first, what do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ceive love in their heterosexual relationships? second, how do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ress their love in their heterosexual relationships? third, what influences have love experienced by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ir heterosexual relationships on them?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ceive love as criteria for making choice of partner, ①emotional intimacy, ②double-mindness of desire and resistance, ③acquisition to a normality and a self-disclosure, ④making boundary between sex and love. 2.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press their love by ① physical closeness, ②spoken language, gaze, facial expression, and gesture, ③caring and sharing. 3.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love are appeared to be ① spontaneous maturity without being forced, ②out of loneness into happiness and anxiousness, ③pursuing of privacy and of what is forbidden, ④overcoming ignorance and inexperience, ⑤expressing consciousness of his or her own sexual life, ⑥ revealing unstable morality and values of sexuality.

Key words: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eterosexual relationship, love, phenomenological study

논문 접수: 2008. 8. 1 심사 시작: 2008. 8. 11 게재 확정: 2008. 9. 26